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세계사적 재조명

23일 '제2차 우남학술회의' 개최... 이승만과 요시다 시게루, 장개석, 케손, 호지명, 수카르노, 마사릭, 벤구리온, 케말 파샤 등 비교

윤빛나 mansc@naver.com



▲ 류석춘 이승만연구원장

[독서신문=윤빛나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운동에 대한 세계사적 재조명이 이루어진다.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원장 류석춘)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소재한 이승만연구원에서 제2차 우남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승만연구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을 지낸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2011년 봄 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매년 1회 학술회의를 열어오고 있다.

이날 학술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과정의 지도자 비교: 이승만 건국의 세계사적 재조명'을 주제로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류석춘 원장(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펼쳐질 1부에서는 '일본의 전후 내각 수상 요시다 시게루와 이승만 비교'(발표: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토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대만의 장개석과 이승만 비교'(발표: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주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토론: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등 2개의 주제발표와 각 주제별 토론이 있게 된다.

김학은 교수(연세대 경제학과)가 사회를 맡은 2부에서는 '필리핀의 건국(케손)과 이승만의 건국 비교'(발표: 류석춘 원장·조정기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동남아전공 석사과정, 토론: 박사명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베트남의 호지명과 이승만 비교'(발표: 오영섭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교수, 토론: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이승만 비교'(발표: 강영순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교수, 토론: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3부는 박사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체코의 마사릭과 이승만 비교'(발표: 김학은 교수, 토론: 김신규 한국외대 체코슬로바키아어과 교수), '이스라엘의 벤구리온과 이승만 비교'(발표: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토론: 김권정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터키의 케말 파샤와 이승만 비교'(발표: 우덕찬 부산외대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토론: 김종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지역연구원)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甯南 李承晩·1875~1965)은 문인이자 사상가요, 외교가이자 현실주의적 정치가였다. 우리 현대사 연구에선 이런 비교사적 연구를 통한 재평가·재조명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돼왔다.

류석춘 원장은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연구원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한 스스로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헌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12년 11월22일 [17:16:00]